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3. 7. 21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英, 5년 만에 새로운 대테러 전략 '콘테스트' 발표
 - 7.18 영국 정부는 예방(Prevent), 보호(Protect), 준비(Prepare), 추적(Pursue) 등 4P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대테러 전략 '콘테스트'를 5년 만에 개정, 공개했다고 발표
 - ※ 내무부는 ISIS·알카에다가 여전히 영국내 테러 공격을 모의하고 있다고 경고
- 佛, 안보 위협으로 무슬림 인권 운동가 추방
 - 7.17 언론은 프랑스 정부가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무슬림 공동 지원단체 '케이지' 간부인 「무함마드 라바니」를 영국으로 강제 추방했다고 보도
 - ※ 프랑스 정부는 同단체가 ISIS 테러리스트 「지하디 존」을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

미주

- 美 법원, ISIS 테러 조직원 모집 혐의 미국인 종신형 선고
 - 7.16 외신은 美 법원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ISIS의 고위급 인사로 활동하며 수천명의 ISIS 테러 조직원을 모집한 美 시민 「Mirsad Kandic(40세)」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보도
 - ※ 同人은 트위터 등 온라인으로 ISIS 선전 및 모집 메시지를 유포하고 ISIS 회원을 시리아·중동지역으로 보내는 한편 무기 밀수에도 관여
- 美, 주말간 잇따른 총기난사로 경찰 포함 5명 사망
 - 7.16 언론은 美 경찰이 조지아주에서 총기를 난사하여 4명을 사망하게 한 용의자 「안드레 롱모어(40세)」를 추적하고 있으며, 노스다코타·메릴랜드주에서도 총격 사건으로 경찰 등 사상자가 8명 발생했다고 보도
 - ※ 美, 조지아주 사건을 올해 381번째 총기난사(희생자 4명 이상) 사건으로 규정

아 · 태평양

○ 파키스탄 탈레반 지도자, 아프간에서 살해된 채로 발견

- 7.13 언론은 '21.7월 파키스탄 Dasu 지역에서 폭탄테러를 주도적으로 자행하여 12명의 사망자를 발생하게 한 파키스탄 탈레반(TPP) 소속 지도자 「무하마드 타리크」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살해되었다고 보도
- ※ 또한, 파키스탄 정부는 '22.11월 Dasu 테러 공범 2명을 체포하여 징역 800년 선고 및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재발 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 표출

○ 印, 카슈미르 지역 분리주의 활동 공직자 50여명 해고

- 7.18 언론은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지난 2년여 동안 52명의 공직자가 분리주의 사고방식을 견지하거나 테러단체 연계 활동을 한 혐의로 인도 헌법에 따라 反국가 활동으로 인정되어 해고되었다고 보도
- ※ 일각에서는 同 조치가 카슈미르 內 언론인과 활동가 등에 대한 공격이라 비판

중 동

○ 이라크, 'IS 마약' 캡타곤* 생산 제조시설 적발(연합뉴스)

- 7.16 이라크 내무부는 사우디 국경과 인접한 지역에서 'IS 마약'으로 불리는 캡타곤 생산 제조시설이 이라크內 적발, 이는 마약밀매 업자들이 시리아에서 이라크로 생산지를 확대하려는 시도라고 발표
- * 중독성이 강하고 복용하면 두려움과 피로감을 줄여줘 ISIS가 전투에 나서는 대원들에게 복용

아프리카

○ 나이지리아, ISWAP 근거지 폭격을 통해 테러리스트 11명 사살

- 7.18 언론은 나이지리아軍이 자국 內 ISWAP의 근거지 첩보를 입수해 지난 15일 보르노州에서 대규모 소탕 작전을 수행하였으며, 지역 사령관을 포함해 테러리스트 11명을 사살했다고 보도
- ※ ISWAP가 해당 지역 軍 초소 공격 등 반격을 위해 재집결 중이라는 첩보가 있다고 부언

불가리아, 이스라엘 여행객 대상 '폭탄테러' 발생

- '12.7.18 불가리아 부르가스 공항 주차장에서 이스라엘 여행객이 탑승한 관광버스를 겨냥한 폭탄테러가 발생, 여행객 등 6명이 숨지고 30여명 부상
 - 이스라엘 「베냐민 네타냐후」 총리는 同테러 배후로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무장정파 '헤즈볼라'를 지목하며, 강력한 응징을 예고
 - 한편, 일각에서는 당해 1월 유럽內 이스라엘人을 겨냥한 테러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, 同테러를 방지하지 못한 불가리아 당국을 비난
- 이후, '20.9.21 불가리아 법원은 쾰석 재판(피고인 未출석)을 열고, 테러 범인으로 기소된 「멜리아드 파라」 등 2명에게 종신형 선고
 - 同테러 배후로 레바논 무장정파 '헤즈볼라'를 지목하였으며, 당초 '자살 폭탄테러'로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, 테러범들이 버스內 폭탄 가방을 내려놓고 원격조종 장치로 폭발시킨 것으로 확인

테러 단체

Weekly Terrorism Trends

< 헤즈볼라(Hezbollah) >

- (결성) '82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을 계기로 시아파 이슬람 단체인 '이슬라믹 아말'과 '다와'당이 연합하여 결성
 - * 테러단체 지정 : 美('97.10), 英('01.3), 캐나다('02.12)
- (핵심인물) 하산 나스랄라(사무총장), 나임 카셈
- (활동지역) 레바논 베이루트, 베카계곡 및 남부지역
- (활동수법) 국경지역 이스라엘軍 대상 게릴라戰 및 해외소재 유대교회당, 이스라엘 관광객 등 대상 폭탄테러 자행
- (주요테러) '83.10 美해병대 캠프에 폭탄차량 돌진(사망 241), '84.9 美대사관 공격(사망 20), '94.7 부에노스아이레스 소재 유대인센터 공격(사망 80)